

'반'성폭력'지'침 원정대

2015년 7월
노동당 서울시당

'반성폭력 지침서'를 내면서

이 지침서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성폭력에 대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펴냈습니다. 연애 중 폭력뿐 아니라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약자를 억압하려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 떠나는 여정에 당원 여러분이 직접 반(성폭력)지(침) 원정대가 되어 참여해주세요.

*지난 줄거리(Previously on the Middle Earth)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절대 반지'가 집에서 잠자던 노동당원 '프로도'의 손에 우연히 들어간다. '프로도'는 당에서 '회색의 마녀'로 불리는 현자 '간달프'에게 찾아가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간달프'는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지침을 안내한다. '프로도'는 애인 '샘'과 함께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

"간달프, 우리가 반지를 파괴하겠어요. 아니면 파괴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죠? 차라리 반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 제가 선택되었지요?"

"프로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 반지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나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이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되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두 짜내야 합니다."

*** 목차 - 프로도의 열 가지 질문, 간달프의 열 가지 대답**

1. 이게 왜 성폭력이죠?
2.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3. 피해자라고 해서 그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4. 내가 왜 이차가해자인가요?
5. 내가 입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싶어요.
6. 내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잖아요.
7.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에요.
8. SNS가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죠?
9. 노동당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10. 가해자를 징계하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Q1.

프로도: 이게 왜 성폭력이죠?

간달프: 성별이 무엇이든, 어떤 취향을 가졌든 자기 몸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강간, 강제추행 등 강제적인 성행위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에는 그런 강제적인 성행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당은 강령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당규 제5호 제2조 제2항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성적 자율권’이란 자신의 몸이나 성적 취향이 다른 이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강제로 구속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나 성적 취향이 다른 이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았다면, 그것이 꼭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강제적 성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의 주인이며 성적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받았다면 누구든 당에 마련된 절차를 통해 이를 신고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프로도: 집안이나 연애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간달프: 성별에 따라 위계가 갈린 상태에서 약자를 위협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근절해야 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비단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일반은 객체이고 남성 일반이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만이 아니라 연애 중 폭력(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성폭력'입니다. 사회에서 부여한 성별 간 권력의 정도에 따라 약자인 사람의 몸을 공격하고 그 주체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이처럼 구조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며 대개는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Q3.

프로도: 피해자라고 해서 그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간달프: 피해자의 말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가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말과 경험에 귀를 기울이지는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겪고 이를 공개하는 데까지 겪었을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생존권과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자 발언의 진위부터 의심하고, 피해자의 폭로를 문제 삼는 행위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게 합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들은 피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사건들과 달리 유독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만 피해자의 진술이 부당하게 의심받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그만큼 자기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가 힘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공격과 비난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기울어진 권력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피해자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피해자의 발언만 듣고 곧바로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처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조사 과정을 거친 후에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그 조사 과정에서, 혹은 다른 매체나 공간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반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가해자를 지지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충분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고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피해자의 발언권을 막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Q4.

프로도: 내가 왜 이차가해자인가요?

간달프: 피해자에게 의문을 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피해자를 크게 위축시킵니다.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자체가 일차가해라면, 이차가해는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방해하는 행위, 피해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가해자를 부당하게 옹호하는 행위 등 성폭력이 발생한 후에 피해자가 추가로 겪게 되는 가해 양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공론화 방식을 비판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하거나, 성폭력이 맞는지 여부를 되묻거나, 사건 자체에 무관심해지려는 태도를 전부 이차가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발언이나 행위가 놓이는 맥락이 있을 것이고, 그 맥락에 따라 이차가해인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사건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그 어려움은 사건 공개 뒤에도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나서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에게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정말로 미숙한 점들이 있더라도 그 점들은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이지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기각해야 할 근거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의문을 제기하거나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캐묻는 행위는 이차 가해인지 여부를 떠나서 자제해야 합니다.

TIP1: 길잡이 쌤의 한 마디: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골룸 같은 말들을 나열해보자

- “피해자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유도했어.”
- “피해자가 가해자를 착각하게 만들었겠지.”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양심을 품고 있었어.”
- “가해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 “그 일이 있던 지가 언젠데, 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지?”
- “성폭력은 잘못이지만, 그걸 꼭 만천하에 드러내야 해?”
- “가해자가 큰일 할 사람인데 잘못 걸려서 앞날이 안 됐네.”
- “피해자 때문에 우리 조직만 이상한 조직 됐어.”

Q5.

프로도: 내가 입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싶어요.

간달프: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주변 사람을 염려하고, 가해자의 의도를 추측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로 인해 발생한 나의 감정, 피해로 입은 외상이나 내상, 현재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대응에 쏟을 기력과 시간을 확인해 봅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피해 후 자신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를 보호하려고 했는

지,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였는지, 필요한 진료 또는 상담을 받았었는지. 나의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가해자에게 피해로 인한 나의 감정을 전달하였는지, 가해자에게 피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가해자의 반응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었는지, 나를 지원할 수 있는 주변인이나 기관을 찾아보았는지 점검합니다. 당시의 상황 기록, 물적 증거,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정리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이나 협박의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거나 비난할 것이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말을 지지하며 들어주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인이나 기관을 찾아봐야 합니다.

TIP2: 길잡이 샘의 한 마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 무엇보다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 분노를 인정합니다.
- 가능한 가해의 물질적, 신체적 증거를 수집하고, 여의치 않다면 가해자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목격자, 자신의 대응과 가해자의 행위, 태도 등을 가능한 상세히 기록 및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상황으로부터 탈피, 가해자 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회복 등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봅니다.
- 내가 원하는 바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과 그것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봅니다. 필요하다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인이나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TIP3: 길잡이 샘의 한 마디: 도움받을 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02-338-5801~2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 02-335-1858)
- 한국 여성의 전화 <http://www.hotline.or.kr> 02-2263-6464(가정폭력 상담) 02-2263-6465 (성폭력 상담)
- 노동당 laborparty.kr 02-6004-2000

Q6.

프로도: 내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잖아요.

간담프: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거나 변할 수 없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자신의 행동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가해자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최소화시키면서 실수였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사소한 혹은 별일 아니다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공개 후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 정보와 사건 정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해결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에게 진정 잘못을 저지른 행위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또는 없다는 말로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믿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기억합니다.

TIP4: 길잡이 샘의 한 마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사건 정황을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개입하려하지 말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기관이나 주변에 성평등 교육이나 성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항상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Q7.

프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에요.

간담프: 사건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지 말고 반성폭력 운동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사생활과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함부로 이용하지 마세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해당 사건의 해결에 관련된 사실들만을 공표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피해자의 주변인이자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시에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피해자의 대응이 '내 입장에선'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입장을 설명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

다.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연대하고 피해자를 지지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소외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의 곁들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피해자가 치유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도록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 방관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TIP5: 길잡이 샘의 한 마디: 성폭력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당신은?

-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시에는 위로 혹은 격려합니다.

- 피해자의 대응이 '내 입장에선'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나라면 ~ 했을 것이다'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 "용서해라"라는 식의 말은 삼가고, 그보다는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노력합니다.

-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IP6: 길잡이 샘의 한 마디: 성폭력 가해자의 주변인으로서 당신은?

- 가해자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해자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느라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잘못 걸렸다.' 등으로 가해를 합리화하거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 가해자가 한 행동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 우리 문화가 가해자를 만든다며 사회적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가해는 당시 가해자가 선택한 의지의 행동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가해자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우리 사회 안의 가부장적 성문화를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을 모색해 봅시다.

Q8.

프로도: SNS가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죠?

간달프: 일단 내 손을 떠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떠도는 말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

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증언은 당 안팎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더구나 SNS에 게재된 글은 확산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벼운 생각으로 한 행동이 사건을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심이 있다면 주변인 행동지침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타임라인은 우리 자신이 구성한 것으로 진실과 다르게 편향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에 기반하여 개별 사건을 평가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공간처럼 보여도 소셜 네트워크에서 한 말에는 공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도 소셜 네트워크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이차가해를 입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이입하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해진다면 잠시 인터넷을 멀리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리트윗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며, 실생활에서 여성주의적 실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Q9.

프로도: 노동당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간달프: 징계는 사건 해결의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며, 당헌과 당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 당기위원회에 사건을 제소해서 가해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속된 광역시도당 당기위에 제소되며,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과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노동당 당기위원회에서는 반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피해자 성별과 동일한 조사위원을 과반으로 한 당기위원 3인이 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제소인이 된 가해자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의 결정에 반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경고, 당권 정지, 제명의 세 가지가 있으며 교육, 피해 변상, 글 게재 금지 등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당의 징계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 병행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과 당원들은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판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이 여성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국가를 압박하고 피해자에 연대해야 합니다.

Q10.

프로도: 가해자를 징계하면 모든 것이 끝나나요?

간달프: 피해자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우리 안의 성문화를 성찰합니다.

노동당은 당 강령에 여성주의를 표방한 정당입니다. 당원들은 언제나 더 많은 여성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상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법원조차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도 성폭력을 인정하는데, 당원들이 그보다 더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로 피해자의 증언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외의 증인이나 목격자가 있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물적 증거 또한 남아 있기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용해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가해 없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가해자를 만든다며, 문화 탓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는 당시 가해자의 의지로 인한 행동이었음을 잊지 않습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성문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방적인 행동들을 낭만화하고, 아무렇지 않게 가해를 해왔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 '치유하기'
2. 진보신당, '이것은 기본 - 당원들의 성 인지적, 소수자 인지적 마인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집'
3. 콩국수, '여성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반성폭력지침원정대' 제작팀 드림

강현주, 김예찬, 김희연,
문계린, 민경, 백상진, 콩국수